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3월 4일(수) 제 3272호

현대로템 무주 3천억 투자..항공우주 거점 시동



현대로템(주) 무주군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 투자협약식

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무주군 일원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현대로템(주)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용배 대표이사, 황인홍 무주군수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도, 현대로템과 항공우주기지 조성 2034년까지 3천억원 단계 투자 램페트-메탄엔진 생산 거점 구축 동부권 균형발전-방산생태계 확대 R&D 중심 고급 일자리 창출

전북도가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주)의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켰다.

전북 동부권을 미래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사실상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3일 도청에서 무주군 일원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MOU)을 현대로템과 공식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과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으로 무주군 일원 축구장 107개 규모의 76만 330㎡(약 23만 평) 부지에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구축될 시설은 ▲초음속 터티드 램페트 엔진 ▲극초음속 이종램페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을 생산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다. 이는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시험-검증-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R&D 중심 시설로 조성된다.

이 중 터티드 램페트 엔진은 초음속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 공기 흡입 방식으로 작동해 고효율·장거리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핵심 추진기관으로, 미래 전장의 판도를 결정할 전략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무주 항공우주 생산기지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R&D 기지 조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들의 연쇄 이전,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로 무주군은 전통적인 관광·휴양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첨단 항공우주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출범 초부터 도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기업 유치'와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동부권에 적합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현대로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무주군의 지리적 이점과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의지를 앞세워 최종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도와 군이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기업 협의, 핵심 쟁점 해소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공조한 결과물이다.

무주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터티드 램페트 엔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유도무기 체계에의 적용 확대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우주항공청 신설로 국가 우주 정책 지원 체계가 강화된 데 이어, 최근 10년간 R&D 투자가 지속 확대되면서 위성·우주발사체 엔진, 유도무기 엔진 등 고부가가치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투자는 전북이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중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도내 방산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항공우주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유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과 전북이 첨단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비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탄이다"며 "현대로템이 무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배 현대로템(주) 대표는 "전북이 미래산업의 First Mover로서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협약은 당사와 전북도가 함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략적 동행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로템(주)은 197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글로벌 종합기계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을 성사시켜 K-방산의 위상을 높였고,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양산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도 개척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3일 전북지사 출마를 접고 정책연대를 통해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을 지원키로 했다. 안정 두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손을 맞잡았다.

정현을 시장 도지사 출마 철회 "익산 현안 도정 최우선 추진" 민주당 경선 3자 구도 형성

안호영·정현을 정책연대 선언 전북지사 선거 3파전



정현을 익산시장은 3일 전북지사 출마를 접고 정책연대를 통해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을 지원키로 했다. 안정 두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손을 맞잡았다. <전북타임스>

정현을 시장 도지사 출마 철회 "익산 현안 도정 최우선 추진" 민주당 경선 3자 구도 형성

정현을 시장은 "지금 익산은 제2공공기관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그리고 KTX 익산역 중심의 복합개발 등 미래를 결정지을 중추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익산의 대도약'을 완성하는 것이 저를 뽑아주시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구상한 전북 발전의 청사진과 익산의 핵심 공약들은 이제 안호영 의원이 이어받아 전북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시장은 "제가 안호영의원님을 선택하기로 한 것은 안 의원님이 저의 정책과 공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익산발전을 위한 각종 숙원사업들을 반드시 실행해 주실 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익산의 자부심을 완성하고, 익산의 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안 의원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전북지사 출마 포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김관영 현직시와 안호영·이원택 의원간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신문이 살아야 지역소식이 살아납니다

지금 광고로 지역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세요!

광고문의 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3

전북도, 신학기 급식 안전 총력...343개소 전면 점검

학교·유치원 식중독 선제 차단 급식소 205곳 위생 집중 점검 노로바이러스 등 균 검사 병행 소비기한·보존식 관리 확인

전북도는 3일부터 20일까지 14일 간 도내 학교·유치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34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학 초기 급식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는 도와 시군.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7개 반 30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유치원·학교 급식소 205개소에 대해서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

교의 경우 살균소독장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준수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조리장 위생·정결 상태 ▲식품용 기구 세척·살균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학교 급식소에서 자주 제공되는 식품과 조리식품을 수거해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하고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신학기에는 집단급식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대규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유치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식목일 3월 21일로 조정 법안 발의

기후변화반영 산림기본법 개정 UN 세계 산림의 날 연계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 현재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46년 처음 4월 5일로 정해진 식목일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기후 변화에 따라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와 비교해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날짜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도는 섭씨 6.5도이며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나무를 심기 좋은 날'이 앞당겨진 만큼 현행 제도가 현재의 기온 상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립 나무심기 주간'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식목일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식목일의 상징성이 중요한 만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목일 조정에 대한 논의의 자체가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정헌을 시장 뜻 계승...익산 경제수도 만들 것"

정헌을 출마 포기에 입장 발표 익산 제2혁신도시 지정 추진 산단 리노베이션·공공기관 유치



이원택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원택 국회의원은 3일 도지사 출마 포기를 선언한 정헌을 시장의 경륜을 높이 평가하며 "익산의 자부심과 정 시장님의 행정철학을 온전히 이어받아 익산을 전북의 확실한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헌을 시장님은 지난 10여 년간 익산의

다이로움 정책 등을 성공시키며 현장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신 분이므로 그간 정 시장님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고민을 온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 시장이 꿈꿔온 익산 발전의 비전을 자신이 더 크고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헌을 시장을 지지

해 온 익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 맞춤형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익산을 제2혁신도시로 지정하고, 황등 폐석산관광자원화, 익산 산단 리노베이션, 농생명과 금융 분야 55개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익산을 전북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익산을 스마트 농기계 및 지능형 피지컬 AI 실증단지의 메카로 육성해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푸드벨트 구상을 전북도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수준의 식품 바이오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연대는 선거가 끝나면 희미해지지만, 정책에 기반한 진정성은 도민의 삶을 바꾼다"며 "정헌을 시장님의 행정 디테일과 저 이원택의 추진력을 결합해, 익산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도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중동발 위기 대응 수출 비상체제 돌입

유가 급등·물류 차질 선제 대응 수출기업 1,800곳 긴급 모니터링 금융·보험·물류 지원 확대

전북도는 4일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고조된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하며 도내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군사적 충돌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전북 수출액이 64억 7,2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

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중동 리스크가 경제 변동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1644-7155)'을 중심으로 중동 관련 긴급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중소기업 1,8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정세 변화, 유가 및 환율 동향, 해상 물류 상황 등을 담은 긴급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수출인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긴급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관세사와 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기업별 리스크 진단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지연이나 통관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금융·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수출보험 지원을 비롯해 수출 자금, 물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위험 분산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해 대금 미회수, 운임 상승 등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은 4회에서 5회로, 전북형 수출바우처 사업은 40개 사에서 50개 사로,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은 12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 진입 문턱을 낮추

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도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금융·물류·수출보험 등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중동 사태가 단순한 지정학적 이슈를 넘어 전북 도민의 먹거리이자 핵심 산업인 수출 현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번 경제 파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도내 수출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북의 수출 경쟁력을 견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착한가격업소 540곳으로 확대 추진

43개소 확대 물가안정 도모 업소당 110만원 인센티브 지원

전북도는 지역 물가안정과 도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97개소에서 올해 54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적절한 품질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지원하는 제도로, 정부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 중이다.

2026년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497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4개소 ▲이·미용업 69개소 ▲숙박업 12개소 ▲목욕업 등 기타 12개소로 구성돼 있다.

도는 지정 업소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별로 1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물품 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공공요금 지원 등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



드사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세부 적용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운영해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이용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독감 무료접종 4월 30일까지 진행

전북도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 학기 학교와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이 본격화됨에 따라 독감 확산을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한 조치다. 무료 접종 대상은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중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인 경우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는 2회 접종 대상이며, 그 외 대상자는 1회 접종하면 된다.

도는 특히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무료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명옥 전북자치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개인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감기와 독감 예방법



독감 유행 전 미리 예방 접종하기



따뜻한 물 또는 건강 차 섭취하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 섭취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전주시민 새벽 출근길 아침식사 민·관 ‘맞손’

지역 7개 기관단체간 역할 분담 통해 사업 추진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손잡고 새벽 출근길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시는 3일 '2026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새벽 근무 노동자들이 1000원 부담으로 간편하고 영양이 있는 아침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재)전주시복지재단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 △전주시원시니어클럽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사회적협동조합 등 7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사업 총괄과 집행을 담당하고, (재)전주시복지재단은 후원금 접수와 관리 업무를 맡기로 했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는 산단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과 위생 점검을 맡고, 전주시원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현장 간판식 배부를 지원한다.

(재)전주문화재단과 팔복예술사회적협동조합은 장소 제공과 이용 근로자들에게 카페 음료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원 관리와 운영 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4900만원을 활용해 총 13회에 걸쳐 연인원 4325명의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운영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천원의 아침밥 오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10개월간 총 158회 운영되며, 기존 주 1회에서 주 4회(화-금)로 확대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매회 200명씩 연인원 약 31,600명의 노동자에게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영양 간편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예수병원 '로봇수술센터' <사진=전주예수병원>

예수병원 '로봇수술센터' 개소

최첨단 로봇 시스템 기반 전문 수술센터 출범

전주예수병원은 '로봇수술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Single Port)'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예수병원은 환자 중심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본격화했다.

앞서 예수병원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다빈치 SP는 좁고 깊은 인체 조직에 접근해 수술하는 데 특화된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약 2.5cm 미만의 작은 절개창 하나만 내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절개해야 했던 기존 수술에 비해 출혈과 통증이 획기적으로 적다.

특히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만족도가 높고, 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새롭게 문을 연 예수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다빈치 SP 전용 수술실을 갖추고 외과, 산부인과(여성의학센터) 등 전문 의료진들의 유기적인 다학제 협진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난도 수술에서 환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예수병원은 이번 로봇수술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수술 전 진단부터 회복까지 책임지는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가동하며, 전북 지역 최고 수준의 로봇수술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 남부시장 '모이장' 개관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 특산물 판매공간으로 조성

전주시는 3일 남부시장 내 공동판매장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모이장' 여는 날(개관식) 행사를 개최했다.

모이장에서는 전복의 다양한 특산물들

과 복합문화공간을 한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남부시장 '모이장'은 1층(1424㎡) 규모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전복도의 다양한 특산물들과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판매 공간 △

공연장 등이 갖춰져 있다.

건물 2층(1639㎡)은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모이장은 크게 문화예술 공간인 '놀장'과 식음료 판매·여행사 휴식 공간인 '만나장', 팝업전시 공간인 '업장', 특산물 판매 공간인 '모이장'으로 구성됐다.

/정소민 기자

오는 16일까지 사업 신청 2년간 매월 10만원 적립시 최대 480만원+이자 지원

전주시 '26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전주시 청년이 2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가 동일 금액

을 매칭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계속 근로(주 15시간 이상)해 은근로자 또는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희망자는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와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근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이트(double.jb2030.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병오년 새해 안녕 기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기집놀이공연 등 세시풍속 재현

(사)전주기집놀이보존회는 지난 2일 전주기집놀이전수관 인근 삼천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전통 세시풍속 행사인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시공휴일을 맞아 정월대보름 하루 전에 개최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주기집놀이전수관 일대에서는 사진행사로 오후부터 △풍물패 길놀이 및 지신밟기 △부럼 나눔 △소원지 쓰기와 달집 걸기 △투호놀이, 연날리기 등 전통놀



이 체험 △도 무형유산인 기집놀이 공연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흥을 돋웠다.

본 행사인 달집태우기는 한 해의 액운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 행사로, 방문객들은 병오년 새해 소망이 담긴 소원지를 작성해 달집에 매달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며 등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한중원 씨, 기부봉어빵 운영해 성금기탁

전주시 거주 한 청년의 봉어빵 판매 수익금이 지역사회 청소년 후원금으로 전달되며 훈훈한 나눔온기가 전해졌다.

3일 전주시복지재단에 태평동 소재 한중원 씨(22세)의 성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한중원 씨는 1.3일부터 2.11일까지 전주중앙시장에서 '기부봉어빵' 운영하며 모은 판매 수익금 전액을 성금으로 마련했다.

전달된 성금은 원거리 통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통학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시복지재단은 '23년부터 저소득가정 고등학생의 학업 장려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에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는 전주시복지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헌신 보담 '장학생' 모집

3년 이상 근속 대원·자녀 대상 3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목욕기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생을 모집한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3일 마감).

이번 장학생사업은 3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 또는 해당 대원의 자녀(고등학생·대학생)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5명을 선발해 1인당 약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화재 현장 지원

과 재난 복구 활동,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화재예방 캠페인, 지역 행사 안전 지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지역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활동해 왔다.

이번 장학금은 이처럼 현장에서 헌신해 온 대원들의 노고에 실질적인 보답을 전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은 근속 기간과 봉사활동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학업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된다.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노인 의치·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플란트 지원 등 저소득층 노인 구강기능 회복 지원 강화

전주시는 노인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해 노인 의치(틀니)사업을 임플란트 지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시는 구강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

가 보다 적합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담과 지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로, 보건소 상담 및 1차 구강검진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

다.

이후 대상자는 연계 치료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희망자는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또는 덕진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전술훈련 자체평가'

출동부서 전 직원 참여 실적 중심 훈련·평가로 전문성 제고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3일부터 '2026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자체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평가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전반에 대한 전술 수행능력 점검과 교육훈련 성적에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 근무하는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센터장과 구조대장을 포함한 총 192명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는 대응예방과 전술훈련 평가위원

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실제 현장 상황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재진압 분야는 △화재진압 4인조법을 통해 팀 단위의 유기적인 전술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이와 함께 화재 이론과 안전관리, 소방시설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조 분야는 △로프하강 및 등반 기술을 평가하고 구조 실무와 안전관리 이론을 병행하여 전문 인명구조 역량을 검증한다.

구급 분야의 경우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훈련을 3인 1조로 실시하여 실제 구급 현장에서의 협업 체계와 안전관리



지식을 면밀히 평가한다.

대원들은 평가를 단순한 성적 산출이 아닌 현장 대응 능력을 되돌아보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송천1·2동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강화

전주시는 3일 시·구·동 공무원 및 관할 권역 환경관리원 40여명과 함께 송천동 일원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송천1동과 송천2동 취약지 위주로 실시된 집중단속 및 환경정비는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송천동은 원룸과 골목가 등이 많으며 외국인 등의 거주인구가 많아 뒷골목 등에 불법투기물이 산적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식 제고 및 불법투기 일소를 위해 산적해 있는 취약지를 정비했으며 불법투기 파봉확인 및 일몰 후 배출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취약지 이외에도 각 동의 취약지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투기 방지 및 일몰 후 배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대한민국 전기안전 기여 “숨은 주역” 찾아

2026년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공모...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전기재해 예방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발굴에 나선다.

2026년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공모는 3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상은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재해 예방에 헌신해 온 유

공자를 찾아 격려하며 범국민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온 현장 실무자와 관리자 등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제도 정착 △우수 전기제품 개발·보급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감리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향상 및 보급 활성화 등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전기안전공사장 표창 등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은 9월 8일~11일 개최되는 '2026년 대한민국 전기안전컨퍼런스' 중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상훈 또는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김명태 기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사진=전북농협>

“농심전심 전북인삼! 올림픽은 전북에서!”

인삼소비촉진 행사 실시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조합장과 함께 '농심전심 전북인삼! 올림픽은 전북에서!' 슬로건 아래 인삼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3월 행사는 '삼·삼(蔘蔘)데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출근하는 자치도청 직원과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흥맛밥(홍삼담은 맛있는 밥) 650세트를 나눠주며 전북인삼 우수성 홍보와 애용을 부탁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날 행사와 함께

'202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홍삼제품 나눔을 통해 도민 건강을 기원하는 동시에, 전북의 미래 비전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전해졌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전북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농심전심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동심협력(同心協力)에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홍삼제품 나눔을 통해 도민 건강을 기원하는 동시에, 전북의 미래 비전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전해졌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전북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농심전심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동심협력(同心協力)에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경진원, 미국 아마존 셀러 성장 지원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미국 아마존 셀러 성장 지원 사업' 또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미국 아마존 셀러 성장 지원사업'은 미국 아마존에 입점을 희망하는 초기기업(아마존 계정 미보유)과 이미 미국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유망기업(아마존 계정 보유)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은 미국 아마존 외에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예, 알리바바, 이베이, 미국 외 아마존 등)에 입점해 있는 기업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아마존 진출을 준비하는 초기기업에게는 아마존에서 인정한 공식 외부 사업자를 통해 최대 300만원 지원금 안에서 교육, 상품입고 등을 지원받는다.

미국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유망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지원금 안에서 광고,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 등을 지

원받을 수 있다. 이는 유망기업인 경우, 작년 대비 최대 200만원이 증액된 지원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확장했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기업도 검색엔진 마케팅, 소셜미디어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최대 6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작년에 비해 최대 270만원이 증액된 혜택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에 분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주요 지원 품목은 뷰티, 패션잡화, 생활용

품, 홈엔터테인먼트 등 소비재 제품이다.

기업 선정은 기업 현황, 수출 인프라, 수출 실적, 제품 및 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국 아마존 초기기업'은 5개사, '미국 아마존 유망기업'은 10개사,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참여기업'은 15개사, 총 30개사를 선별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jbexpor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3월 3~4주경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배·사과 재배 농가에 개화 전 방제 당부

과수화상병 방제 준비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국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꽃 피기 전 과수화상병 방제 준비를 당부하고 약제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과수화상병은 개화 전후 감염 위험이 매우 커 사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과보다 먼저 꽃 피는 배는 '꽃눈이 튼 직후'가 방제 적기이다.

이 시기에 구리 성분이 포함된 동제(동제 화합물) 또는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 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퍼지기 직전'에 석회보르도액 또는 동제를 살포하는 것이

다만, 석회보르도액이 아닌 다른 성분

의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약제의 적용 시기와 사용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약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개화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제 약제를 관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가는 약제 살포 전 제품 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와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개화 전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동제와 석회유황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면 안 된다.

두 약제를 한데 섞어 사용하면 꽃눈이 쉽게 변하고 말라 죽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동제 살포 뒤 바로 다른 성분의 약제를 연속 살포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개화 전 방제가 마무리되면 지역별 꽃 피는 시기에 맞춰 개화기 방제를 2회~3회 실시해야 한다”며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과수화상병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와 적기 방제 시기를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2026년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

23일까지 신청·접수

중기부는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을 3일부터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인프라·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기반·대학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기반·대학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7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호남권에는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

교가 포함됐다.

먼저 '지역기반 유형'은 권역 내 소재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자금과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선정기업의 6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우선 선발해 청년층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발 유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유형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인공지능 등 대학별 주력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대학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사진=중기부>

선정기업에는 사업화자금과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모집

시장 선도형 제품 고도화 지원

전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 전북디자인센터는 '2026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시장 선도형 제품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을 통해 기존 제조 제품 경쟁력 강화와 신제품 디자인 컨셉트 개발, 디자인 고도화, 상용화 가능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전문가 자문 및 품평회 운영 등 전주기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제품 부가가치 향상 △브랜딩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전북 지역경

제 활성화로 이어져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인 전북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며 디자인 경영 의지와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사업 신청은 리뉴얼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rnd.jbtp.or.kr)을 통하여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테크노파크(https://www.jbtp.or.kr) 또는 전북디자인센터(https://jdbdc.jbtp.or.kr)를 확인하면 된다.

/김명태 기자

전북TP “지역 제조기업 ‘원스톱 혁신’ 이끈다”

전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에서는 지역 내 제조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오픈 랩’ 장비 및 시설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이 운영하는 ‘스마트 오픈 랩’은 설계·시뮬레이션부터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End part), 3D 스캐너를 통한 정밀 검증에 이르기까지 제품 상용화의 전 과정 ‘원스톱 패스트트랙(Fast-track)’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 오픈 랩’은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거점으로 나눠 운영된다.

익산시 합열읍에 위치한 ‘기술지원 오픈 랩’은 제품 설계 및 역설계, 시제품 제작, 품질검증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혁신 공간이다.

이곳에는 고정밀 레이저 3D 스캐너를 비롯해 SLA(액상), MJP(분말), DED(금속), 바인더젯 샌드, 대면적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방식의 산업용 3D

프린터가 구축돼 있다.

또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결함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160kV~600kV급 엑스선 3D 스캐너를 도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지원한다.

반면,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기술교류 오픈 랩’은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3D 설계 및 제조·검증 기술 지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설계 인프라 활용 △재직자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또 스마트 오픈 랩에서는 자동차 서브프레임, 이차전지 배터리 셀, 수소저장 용기 등 정밀 공정이 필요한 부품들의 내부 결함을 비파괴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스마트융합사업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부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7억원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부안군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안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7억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이에 따라 총 27억원 규모 '부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상담접수는 3일부터 시작되고 부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부안군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8년으로 중도상환 수수는 없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부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전북은

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강화 및 지역민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 ‘위탁금융기관 보증 실무교육’

농림수산정책지원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남원센터, 센터장 이성진)는 지난달 26일~27일 총 78개 관할 위탁금융기관 농신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농신보 개점사항 및 농신보의 개요, 신용보증 실무처리 과정, 보증취급 시 유의사항, 보증사고 관리 등 농신보 전반을 교육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이해도를

증진 시켰다.

농신보 남원센터 이성진 센터장은 “가속화 되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으로 농촌경제가 힘들겠지만, 청·장년 농업인 발굴 및 지원과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농신보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6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교육행정직·전산직 등 총 53명 선발... 오는 4월 13~17일까지 접수

3일 전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교육행정직 40명(일반 36명·장애 3명·저소득층 1명), 전산직 1명, 공업직(일반기계·일반전기) 4명, 속기직 1명, 시설관리직 7명 등 총 53명이다. 자격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또 2026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으로 돼 있거나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주민등록상에 전북 주소지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된다.

2026년 제1회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http://edurecruit.jbe.go.kr>)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0일, 면접시험은 오는 8월 14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채용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가산 혜택 등 기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도교육청> /정소민 기자

유정기 권한대행, 전주새연초 신입생 응원

학교발전 간담회 가져 이날 유 권한대행은 학교 교직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관계자 등과 열린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방안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도내 초중고교 신입생은 초등학교 404개교 8980여명, 중학교 206개교 14,620여명, 고등학교 131개교 16,230여명 등 총 39,830여명으로 집계됐다. /김명태 기자

김연수 교수, 장애인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 선출

한일장신대학교(총장 황세형) 김연수 교수(운동처방재활학과)가 대한장애인트라이애슬론연맹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최근 진행된 연맹 회장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월 24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9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대한장애인트라이애슬론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로 구성된 복합 종목으로, 장애인과 등급에 따라 경기가 운영되는 스포츠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종목으로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북돋는 대표적인 경기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는 향후 연맹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수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연수 교수

전북교육청, 종합청렴도 1위 결의대회 개최

청렴실천 대내외의 표명 청렴 공동체 의식 결집

전북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이를 위해 3일 직원조회 및 2026년 청

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6년 1등급 달성 목표를 공식 선포하고 조직내 청렴 공동체 의식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청렴 실천 결의문'이 낭독됐다. 청렴 실천 주요내용으로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공품·향음 수수

금지 △부당한 요구나 지시 △특혜제공 금지 △갑질 근절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나아가 '청렴 열매 맺기' △청렴 △공정 △존중 △소통 △책임의 열매를 청렴나무에 직접 부착했다. 이를 토대로 "청렴 핵심가치 '청렴한

조직문화 결실'을 함께 만들어가자" 강령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전 직원 단합과 함께한 청렴의 가치 실현 확산 위한 '전북교육 청렴! 1등급!'을 콘소리로 외치며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 위한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 /정소민 기자

굿네이버스-김제 큰사랑약국, 좋은이웃가게 현판식

지역사회 나눔 실천 앞장

지난 달 27일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지부장 유기용)는 김제시 검산동에 위치한 큰사랑약국(대표 정준호)과 함께 좋은이웃가게 현판식을 진행했다.

큰사랑약국은 이번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참여해 매장 수익금의 일부를 국내 아동권리보호사업을 위해 후원하게 됐다.

좋은이웃가게는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거나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큰사랑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약국으로, 지역사회 내에서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매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

유기용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장은 "귀 사업장의 소중한 나눔이 지역사회 내 따뜻한 변화를 이끌 것이며, 그 첫걸음을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나눔은 함께 할 때 더 큰 기적을 만든다. 나눔에 동참하는 좋은이웃가게가 많아져 지역사회 내 온정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또 정준호 큰사랑약국 대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동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좋은이웃이 되고 싶다"며, "이 후원이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 지원으로 이어져 아동행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나이스 업무콘텐츠 제작·보급

전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김경기 원장은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을 위해 새학기 나이스 업무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콘텐츠 제작은 학교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나이스 현장지원단'이 직접 참여했다.

이에 따라 3월 신학기 업무별 △하급 편성 △학생명부 관리 등의 기초 작업 등이 제공된다.

특히 콘텐츠는 63개 스포츠 형태로 제작해 카테고리별로 제공하며 교사 업무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자료는 교직원들이 자주 접속하는 업무 포털 화면에 연결해 접근성이 강화된다. /정소민 기자

군산대학교, 2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정원 1803명 전원 등록 강화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여건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기계·자동차·전기·전자·AI·스마트제조 등 미래차·전동차 산업과 직접 연계 가능한 학문 분야와 우수한 연구 역량 및 교수진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대학·산업 간 직결형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김명태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새만금 중심 현대사 동자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전략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인재 공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군산대학교는 산학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태 기자

봄철 화재 예방, 반드시 기억하세요.



산물 화재 예방

-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질 소지하지 않기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 태우기 하지 않기
- 불법 취사 행위 하지 않기
- 통제된 등산로 이용금지



야외 화재 예방

- 불법 소각행위 하지 않기
-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재 조심하기



실내 화재 예방

- 겨울철 사용했던 난방기기를 방치하지 않기
- 기기의 전선 피복 등의 손상 확인하기
- 외출 시 전기기구를 끄고, 가스 밸브 잠그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확인하기

정읍시, 교통약자 이동권 혁신 바우처 택시 본격 도입

정읍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택시'에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바우처택시'를 본격 도입, 통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특장차(장애인 콜택시)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를 운영해왔으나, 비휠체어 장애인의 증가로 인한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 배차 지연이 고질적인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일반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의 호출이 있을 때 바우처 전용 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18대의 장애인콜택시와 4대의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20대의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정읍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30분 이상 소요되던 평균 대기시간을 15분 내외로 단축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더욱 신속하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군산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해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의사 처방에 따라 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이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만 19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민이 지원 대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관리기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총 3종으로 건강보험 요양비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가동 실질적 정책 반영 체계 구축

익산시가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익산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제안의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열렸으며, 조방영 시민참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2026년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 △2025년 시민참여 기본계획 추진 실적 △2026년 추진과제 이행계획 점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올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연 3회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위원별 정책 및 행정 제안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가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방영 시민참여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호남 철도 관문 '익산역' 증축 확정

전주권 광역철도 수요 반영 480억 규모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익산시가 호남 철도의 관문인 익산역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역사 증축과 내부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익산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4년 말 기준 약 1만 8,700명 수준이나, 2040년에는 약 2만 5,4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이용객 혼잡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익산역 증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우선 국비 318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익산역 3층 선상 대합실은 남측으로 약 1,800㎡ 규모로 수평 증축된다.

대합실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상업·편의 시설을 새롭게 배치하고 노후한 내부 시설도 전면 정비해 역사 이용 공간을 현재보다 약 1.7배 규모로 키운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12월까지 증축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시는 이번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선제적 확장'을 이어나간다.

2035년 개통 예정인 전주권 광역철도 수요까지 국토부에 추가 반영을 요청해,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480억 원(3,000㎡) 규모까지 증축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증축 확정은 익산역이 거점역으로 도약하는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권 광역철도 이용객 수요까지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확장을 통해 시민 편의는 물론 도시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장애물 없는' 현대식 화장실 개방

시기동 미로분수 등 총 3개소 4월 전면 개방

정읍시가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정읍천 일원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장애물 없는 현대식 공중화장실 3곳을 신축한다. 시는 오는 4월 전면 개방을 목표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읍천 산책로와 주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꾸준한 수세시 화장실 추가 설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됐다.

시비 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새롭게 화장실이 들어서는 곳은 시기동 미

로분수와 어린이 축구장, 연지동 주민센터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총 3개소다.

특히 새롭게 신축되는 화장실은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예비 인증을 획득해 세심함을 더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신부 등 교통약자 누구나 문턱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또한 주변의 수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외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내부에는 가족 화장실과 최신 위생 설비,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비상벨 등을 꼼꼼히 갖출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시는 2월 본격적인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화장실 구조물 제작에 돌입했다.

오는 3월 말까지 부대 토목 공사와 현장 화장실 설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4월 중 시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천을 찾는 많은 시민께서 더 이상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리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정읍천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들의 명품 휴식처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군산시 'GO! 군산 섬해진미' 참가자 모집

3월 21~22일 고군산도 관리도서 1박 2일 진행

군산시가 해양 미식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첫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고군산군도 관리도에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타 지역 관광객 25명 선착순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GO! 군산 섬해진미'는 고군산 섬 자연을 활용한 체험형 해양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어촌 현장 체험과 지역 식

문화를 결합한 군산형 관광 콘텐츠다.

참가자들은 통발 설치·해무질·낚시 등 어촌 체험과 직접 채취한 식재료로 진행되는 쿠킹클래스 및 미식 토크를 통해 '씨투테이블(Sea to Table)' 전 과정을 경험하고, 섬 해설과 트래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GO!군산 섬해진미'는 고군산 섬 자연을 활용한 체험형 해양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 체험과 지역 식문화를 결합한 군산형 관광 콘텐츠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보완해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올해는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점목한 비치코밍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섬 관광 모델을 제시할 계획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운영에 참여해 지역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상생형 관광 콘텐츠로 추진된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이며,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GO! 군산 섬해진미' 안내문의 QR 부호(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의 해양 자원과 주민의 삶이 어우러진 현장형 미식 콘텐츠를 통해 군산만의 차별화된 섬 관광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공사 재개

내년 개원...산모·신생아 든든한 치유 공간 구축

정읍시가 겨울철 한파로 잠시 멈췄던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를 3일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내년 상반기 개원을 향해 박차를 가한다.

시는 앞서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자로 건립 공사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기상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일부터 공사를 재차 공하기로 결정했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치유 공간으로 조성된다.

용적률 353번지 일원에 연면적 1686.6㎡,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 공사 재개를 기점으로 당초 목표했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향해 계획된 공정을 신속하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사진=정읍시>

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개원 이후 조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다지기도 한창이다.

현재 합리적인 운영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산모들이 가장 편안하게 산후조리에 전념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현장에 잠시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꼼꼼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을 병행할 것"이라며 "건설한 시공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기한 내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군산시 청년플 창업센터가 군산을 대표할 차세대 로컬브랜드 발굴에 나선다.

창업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2026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의 가치·이미지·정체성을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장해, 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창업센터는 2024~2025년 '로컬히어로 육성사업'을 통해 총 1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누적 매출 약 12억 2천만원 △신규 창업 1건 △고용 창출 2명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한다.

먼저,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 1개사를 별도로 선발해 추가 지원하는 성과 중심 브랜드 축적형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지역 자원 활용 여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가치·이미지



가여도 △대표 브랜드 성장 가능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치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7개 기업을 선정하며, 브랜딩·마케팅·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기업별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군산시 청년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세종청사 찾아 국가사업 선점 '총력'

최재용 부시장, 기획예산처 등 방문

익산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대규모 국가사업 선점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에서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한의학 연구·임상 연계 기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 한의약임상연구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지금은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선점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라며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 확보 기원행사 열려

수백 년 동안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바다에 조성 중인 군산새만금항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원 의식과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군산 바다 위에 조성되는 항만은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은 오랜 기간 군산 앞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고, 군산새만금항신항 사업 추

진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과 조업 여건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이 다른 지자체로 결정될 경우, 해양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조성으로 인근 어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체사업 발굴과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호남 첫 코스트코, 익산 입점 속도 낸다

'호남권 첫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 사업이 분개도에 오르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면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 사업이 지난달 27일 익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개선 대책과 보행자 안전, 구조 안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건축위원회는 일부 보완 조건을 전제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조건부 의결'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 6,000여㎡ 규모로 계획됐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를 기점으로 건축허가 신청, 대규모 점포 등록, 착공 신고 등 남아 있는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4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입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코스트코가 성공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청년 함께 두배적금' 추진

청년 재무 컨설팅 지원 자산관리 역량 강화 16일까지 50명 선발

김제시는 관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금융교육 및 재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240만원과 김제

시 지원액 240만원,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금융교육과 재무 컨설팅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김제에 거주하고 가구 중 위소득이 140% 이하인 18세~39세 근로청년으로 시는 올해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www.double.jb2030.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은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청년이 김제에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 <사진=김제시>/김제=은봉기 기자

3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흰물떼새 선정

봄철 갯벌 번식 조류 보호 생태계 보전 홍보 추진

고창군이 3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흰물떼새(학명 Anarhynchus alexandrinus)를 선정하고, 봄철 갯벌 번식 조류 보호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흰물떼새는 몸길이 약 16~17cm의 소형 물떼새로, 밝은 회백색 몸빛과 갈색 무늬가 특징이다.

번식기가 되면 눈 주변과 가슴 부위에 검은 띠가 선명해지며, 갯벌과 모래 해안을 주요 서식지로 삼아 생활한다. 주로 갯지렁이와 소형 갑각류 등을 먹이로 한다.

이른 봄이 되면 모래 위에 얇은 둥지를 만들어 산란과 번식을 시작한다. 고창갯벌의 웨니어 지형과 고창갯벌식물

원 일대에서는 해마다 흰물떼새의 번식이 확인되고 있다.

고창갯벌은 다양한 저서생물과 완만한 지형 조건을 갖춘 연안 습지로, 철새의 먹이활동과 번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흰물떼새와 같은 갯벌 번식 조류의 지속적인 관찰은 고창갯벌 생태계가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래 지면에 직접 둥지를 만드는 특성상 높은 수위로 인한 침수, 포식자 접근, 사람의 출입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번식기 동안 갯벌과 모래 해안의 안정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윤욱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흰물떼새가 매년 고창갯벌을 찾아 번식하는 것은 고창갯벌의 생태계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3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흰물떼새 <사진=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 경영 부담 완화 기대

김제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 현행 감면 기준을 2026년 1월부

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에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형주점업, 무도유형주점업 등 시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미 임대료를 감경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지원' 호응

수혜 대상자 만족도 99% 경제적 도움 97% 등 성황

고창군이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99%의 만족도에 △경제적 도움 97.0% △저작 불편 감소 도움 98.0% △시술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98.0% △경제적 부담 감소, 식생활 도움, 심리적 안정 순으로 높은 호응의 결과를 얻었다.

특히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 2022년 48.1%에서 2025년 32.8%로 15.3%나 낮아졌다.

대상자는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다. <사진=고창군> 지원 사항은 △노인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임플란트·상·하악 구분없이 1인 최대 2개 지원 △지대치 보철=부분틀니 19만 원 최대 3개까지 보철 비용 지원 △틀니 사후 관리·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 관리비 지원이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 임플란트를 망설이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청렴도 향상에 최선"

청렴실천 서약 결의대회 김은지 주무관과 농촌활력 및 김동주 주무관이 대표로 맡아 청렴의 의미를 더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청정도시 김제 건설을 위한 의지를 새겼다.

아울러 시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자율 청렴 실천 서약 주간을 운영해 부서 단위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이어갈 예정이며, 올해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추진단을 확대 운영해 1부서 1시책을 발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를 청렴 도약의 해로 선정해 청렴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을 실천해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보건소-장수군보건의료원, 기부문화 확산

상호기부 추진 상생협력 고창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고창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며 "이번 상호기부제기로 더 많은 국민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성실납세 법인·개인에 표창장 수여

김제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성실납세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납세자 선발조건은 지방세를 최근 5년간 매년 3천 이상 납기내 납부한 자 중 체납액이 없고 매년 납부 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2021년 이후 김제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김제시, 폴리텍대 학생들에 청년 맞춤형 인구정책 홍보

김제시는 3일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에서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전입장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구교육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전입장려금 및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청년 취업 지원 △결혼·출산·양육지원 등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관심 있는 청년 맞춤형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동시에 전입장구 운영을 통해 전입과 인구정책 지원금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현장에서 접수해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호응을 얻었다.

시는 찾아가는 전입장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이 김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김제와 함께 지역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이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다섯 터를 기록하다' 전시 통해 기록화 성과 공유

김제시는 전북대학교 RISE 사업단에서 추진한 '지역의 기억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다섯 터를 기록하다' 전시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만경읍·백산면·공덕면·황산면·봉남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정리한 마을 콘텐츠를 사진과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각 지역별로 12~14개의 대표 콘텐츠를 선별해 마을의 형성과 변화, 산업과 교육, 종교와 생활문화 등 지역 공동체의 삶과 시간을 담았다.

이번 '지역의 기억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은 지방소멸 환경 속에서 마을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구술과 생활사 자료를 수집·정리해 지역의 정체성을 기록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다.전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리며, 신청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의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기록화 사업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해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5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김제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0.1ha ~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농 요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에 따라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가 적용되며, ha당 136만원~21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대면 신청기간은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소유한 농지 중 면적이 제일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비대면(온라인)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농업e지(www.nongupez.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오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 및 농지의 적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과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점검, 소득검증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무형유산 고창농악 공개행사' 성료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가 지난 1일 고창농악전수관에서 '2026년 제28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고창농악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전승 의지를 다지는 연례 축제다. 행사는 정월 대표춤의 정취를 살린 '보름굿'과 고창농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판굿'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마을의 화합을 기원하는 △출다리기 △줄긋기 △오랑가시 △줄감기 등이 펼쳐졌으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제와 당산굿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고창농악의 화려한 진법과 가락이 돋보이는 '판굿'이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이명훈 보유자 인정을 축하하는 기념 잔치가 열려, 전수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이명훈 보유자는 1990년대 초부터 고창농악에 투신해 전수관 운영과 학술적 토대 마련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이번 공개행사는 그가 이끄는 고창농악의 깊은 울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새로운 보유자의 탄생과 함께 더욱 활기차게 비상할 고창농악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대학 신입생 200만원 축하금 지원

육친장학회 통해 진학 축하금 지급 관외고 졸업자까지 대상 확대 4~20일 읍면센터 신청 접수

순창군이 새학기를 맞아 육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하는 교육지원 정책으로, 대학 입학 초기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특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특성화고 등 관외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준은 2024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순창군청 및 순창군 육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학 입학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고 지역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8년 숙원 '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통과

시, 설립 법적 근거 마련 "환영" 공공의료 인력 100명 별도 선발

남원시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는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 준비는 지난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며 본격화됐다. 2018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고, 복지부는 같은 해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 부지



공공의대 월락동 부지 <사진=남원시>

로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구체성을 더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돼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속해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한 상태이며, 단계적 매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하여 기반을 마련해 왔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을 재발의함에 따라 병합 심사를 거쳐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진전을 이루게 됐다. 시는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배 유소년 야구대회 성료 '역대 최대 규모'

170개팀 열전...3,500여명 방문 관내 12개 구장 분산 개최

제11회 순창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대회에는 가장 많은 170개 팀이 참가하며 선수단과 학부모 등 3,500여 명이 순창을 찾으며 규모와 열기 모두에서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달 25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순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관했으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대회는 팔달체육경기장, 공설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생활체육운동장 등 관내 12개 구장에서 분산 개최되며 순창 전역이 유소년 야구의 열기로 가득 찼다. 군은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장 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7개 구장을 특설 구장으로 조성해 대회 수준에 걸맞은 경기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각 구장마다 전문 직원을 배치해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경기 물품과 운영 인력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져 참가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대회 결과, 새싹리그에서는 순천 남산 유소년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꿈나무 청룡리그는 김포시 유소년 야구단이, 꿈나무 백호리그는 안산시 유

소년 야구단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꿈나무 현무리그에서는 무안군 소년 야구단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유소년 청룡리그는 세종시 유소년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유소년 백호리그에서는 중랑 이글스 유소년 야구단이 정상에 올랐고, 주니어 리그에서는 강남 도곡 유소년 야구단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대한유소년야구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타운 도시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청 레슬링팀 오정빈·이한빛 태극마크 달아

선발전 자유형 55·65kg급 우승 4월 아시아·10월 세계 출전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소속 오정빈(자유형 55kg)과 이한빛(자유형 65kg) 선수가 2026년도 레슬링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두 선수는 지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번 우승으로 오정빈, 이한빛 선수는 오는 4월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10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두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계기로 훈련에 매진해 국제 무대에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좋은 성적을 거두



<사진=완주군>

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정환기 완주군청 여자레슬링 감독은 "하루도 쉬지 않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 대회에서도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고,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IEC 공로상 수상

연료전지기술위 CHAIRMAN상 수소특화산업-조례 제정 기여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수소 산업 발전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료전지 기술위원회 CHAIRMAN 공로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완주경제센터에서 열린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워크숍' 현장에서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완주군의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과 수소 산업 관련 조례 제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앞장서며 지역 수소 생태계 기반을 다진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우석대학교 RISE 사업단과 전북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완주수소연구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SZU KOREA가 주관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사진=완주군의회>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완주 수소 산업 거버넌스 위원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수소기술의 유럽 인증 동향 △압력기 설계 기술 및 인증 요구사항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수소 산업 추진 방향 등이 다뤄졌다. 특히 '2026년 수소 분야 기후부 R&D 기획과제'를 공유하며 기업들의 실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완주군이 세계적인 수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완료

사망·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남원시가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6명의 시민이 위로금과 입원비 등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자전거 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자전거 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 범위 내에서 보험 해

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 위로금 20~60만 원 △6월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 보험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안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노후차량 조기폐차 366대 지원

총사업비 6억 8천만원 투입 4·5등급 차량 건설기계 대상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6억 8,500만 원을 투입해 366대(5등급 200대, 4등급 136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3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올해까지 보조

금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세 등 체납사항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량마다 지원기준이 다른 만큼 완주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월부터 20일 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드론스포츠 동호회 등록제 도입

5인 이상 동호회 등록 대상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연계

남원시가 드론스포츠 및 드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드론 동호회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드론스포츠 동호회 등록제'를 추진한다. 등록 신청 대상은 정기적으로 드론 활동을 운영하는 5인 이상의 동호회(남원시 거주자 또는 관내 직장인 과반수 구성)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는 이번 등록제를 통해 관내 동호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드론스포츠를 시민 주도의 생활체육·문화 활동으로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체험·대회 운영과 연계해 지역 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드론동호회 등록제 연계 지원 사업으로 '드론스포츠 동호회 전국 행사 참가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전국 규모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등록된 드론스포츠 동호회'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호회는 사전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공고되는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쌍치면 백은장학회 1,600만원 장학금 전달

순창군 쌍치면 백은장학회(이사장 송진원)는 지난달 27일 쌍치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쌍치면 출신 대학 신입생 8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백은장학회는 쌍치면 중앙마을 출신 재경향우인 고(故) 백은 김상열 회장이 고향 인재 양성을 위해 기탁한 2억 원을 바탕으로 2016년 설립됐다. 이후 영광정 벚꽃나무추진위원회가 7천만 원을 보탬고, 2023년 김상열 회장의 1억 원 추가 기탁이 더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송진원 이사장은 "쌍치면의 큰 어른이신 고(故) 백은 김상열 선생님께서 고향 사랑이라는 소중한 뜻을 남겨주셨다"며 "그 뜻을 이어받은 장학생 여러분이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언제나 고향 쌍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장벽 없는 창업 도시 완주' 공약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중년, 여성 등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창업 도시 완주'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 출마예정자는 창업 도전 응원금 지급, 창업 스킴, 창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창업도시 1번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 출마예정자는 복잡한 사업계획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돕는 무서류 아이디어 창업 도전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창업이 막대한 조보자를 위한 완주 창업학교 상시 운영, 예비 창업자의 시장 조사와 시제품 구상을 위한 초기 활동 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등 창업 장벽을 낮춘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오디션 개최해 매년 100명의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고, 이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창업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국 출마예정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17곳의 글로벌 상권 지정에 준비한다. 청년에게는 빈집을 활용한 창업 공간 제공, 수소국가산업단지 연계 기술 창업을 돕고, 중년 창업자는 경력을 살린 지식 서비스 및 귀촌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한다. 경력 단절 여성은 생활 밀착형 소자본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 파트너'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는 지난달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남원시 거주 3년 이상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든든한 정착 파트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마친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착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래 설계와 다양한 직업체험, 사회활동 준비를 위한 지역 내 기관방문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나찬도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정착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 자원,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준비하고 찾아가길 수 있는 꿈과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남원시가족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센터 지역공동체팀(063-635-5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치매안심센터,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임실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부터 주 1회 1시간, 총 8회에 걸쳐 관내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치매예방 체조를 포함한 신체활동과 다양한 인지 강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치매예방교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해 인지 능력 향상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웃음치료와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치매 예방 습관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한 노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 관련하여 문의는 치매안심센터(063-640-3382)로 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임실군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오전 10시 임실읍 3.1동산에서 심민 군수, 양주영 부의장, 유효선 교육장과 독립유공자 등 보훈단체 회원들을 비롯하여 학생, 군민, 군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현하 및 분향을 시작으로 임실 3.1운동 이야기,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양현 광복회 회장의 3.1운동 이야기와 청소년 대표 2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107년전 3.1절 그날의 굳건하고 애절했던 마음을 되새겼다.

기념사에 이어 진행된 성악 공연에서 뮤지컬 '영웅'을 통해 그 날의 감동을 함께 되새겼으며, 임실군의 번영과 미래세대에 대한 응원, 국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안전·환경 교육 강화**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청소년안전지킴이'와 '지키자 구하자 지구'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안전의식과 환경 감수성 함양에 힘쓰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재난과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청소년안전지킴이' 과정에서는 VR 재난 체험과 화재 진압 시뮬레이터 실습,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진행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처 요령을 직접 익히며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높였다.

이어 '지키자 구하자 지구' 프로그램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조별 토의와 목재 체험활동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청소년들이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증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저탄소한우산업지구' 협약체결

**10개 관계기관단체와 협약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성공적인 조성·활성화 기대**

장수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저탄소한우 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북대학교, 장수·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 장수군유통사업단, ㈜이티바이오텍, ㈜복수 등 10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해 협약기관 간 상호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수군은 사업 총괄과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전북대학교·무진장축협·장수한우지방공사·㈜이티바이오텍은 저탄소 종축 및 사양 관리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저탄소한우 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조성·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장수군>

또한 ㈜복수는 저탄소 기반 도축·가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수·장계농협과 장수군유통사업단은 '장수 저탄소한우'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가 참여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 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 참여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데이터 공유와 탄소 감축 가이드라인 준수, 공동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장수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28일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3월 3일~17일 참가 신청 접수**

임실군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임실N장미축제를 전국에 알려 천만관광 명품도시 임실을 실현하기 위해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을 오는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실N장미축제(5.28~5.31)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방송을 통해 임실의 대표관광지와 축제를 전국 시청자에게 소개함으로써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



지 읍·면사무소와 임실군청 홍보담당관(063-640-4932-4934)을 통해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임실군민과 관내 직장인, 학생 등으로 제한되며, 기성 가수는 제외된다.

예시는 3월 26일(목) 오후 1시부터 임

실군민회관에서 열리며, 1차 무반주 심사와 2차 반주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5팀을 최종 선발한다.

본선 녹화는 3월 28일(토) 오후 2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사회자 남희석의 진행 아래, 미스트롯2 우승자 안성훈,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을 비롯해, 김성환, 황민우, 염유리 등 초대가수 5명과 예심을 통과한 15팀의 참가자들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 근로자 발대식

**3~11월까지 공공산림관리단 등
9개 분야 103명 활동**

무주군 3월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6년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 근로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은 산림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발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의장을 비롯한 한 선별 근로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사업장별 운영 업무와 일정,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설명 등 사업장 안전교육과 분야별 설명회에

함께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산림자원의 가치 향상에 동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참여 근로자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바로 자연특별시 무주를 지키는 '역군'이라며 '여러분의 활동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으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제4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5년차이하공직자 19명 참여
실행 중심 조직혁신 본격 시작**

장수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4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젊은 공직자 중심의 참여형 혁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5년차 이하 공직자들이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내부 혁신기구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0월 첫 출범 이후 3기까지 운영되며 방화동 위케이션 활성화 방

안 논의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주니어보드는, 올해 4기를 맞아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제4기에는 자유 신청을 통해 19명의 회원이 선발됐으며 △조직문화 개선 과제 발굴 △일하는 방식 혁신 논의 △AI 역량 강화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제안된 의견이 단순 건의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 전반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자율적인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주니어보드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혁신 주니어보드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행정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전개

**학교 앞 캠페인 시작으로
합동 점검까지 실시**

무주군이 지역 내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한 지난 3일,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 등교 시간에 맞춰 무주중학교 정문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앞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청, 무주경찰서,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주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무주지구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유해환경으

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탈을 막아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며 "이번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날 읍·면 예방을 비롯해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학교 주변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준수 여부, △주류·담배 판매 행위, △유해 광고물 게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무주군보건소의료원이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읍·면 예방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본격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임실군이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임실군청 회의실에서 박현숙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실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농촌 공간의 향후 10년(2026~2035)의 농촌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임실군 전역을 대상으

로 한 △재생활성화지역 지정, △8개 분야의 농촌특화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지정 및 관리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특화지구 설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과 세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실군은 이번 심의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보편화하여, 올해 상반기 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구제역 발생·확산 사전 차단

임실군은 올해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접종은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임실군 전 지역을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소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 농가는 582호 2만 870두로 지정했다.

접종 방법은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예방접종요원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하도록 한다. 다만, △예방접종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개체 △임신 말기로 농가에서 유예를 신청한 개체 △2개월 미만 개체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실군은 올해 50두 이상 100두 미만 전업농가에 소 구제역 백신을 지원한다.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농가는 162호 1만 591두로이며, 임실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와 보정반을 동원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군 상관면, 달집태우기로 액운 쫓고 화합 다져

완주군 상관면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하고 면민의 풍요와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상관면어울림회(회장 김현호)와 전국풍물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일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옆 공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민과 주요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전통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풍물굿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풍년기원제(판굿), 달집태우기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소망을 적은 소지 율리기를 통해 한 해의 액운을 쫓고,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가정의 안녕과 풍년을 함께 염원했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함께 찰밥, 돼지고기, 부럼 등 명절 음식을 나누는 부대행사를 마련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주민들은 정겨운 풍물 소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아영면지사협, 신입생 입학용품 지원

남원시 아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아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신입생 5명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응원과 소정의 입학선물을 전달했다.

아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출산·고령화로 아영초등학교 입학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역사회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3년째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올해 아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용품 지원사업 △어르신 생신축하사업 △밀반찬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총체적인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남원=정화복 기자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 장수군에 2,010만원 기탁

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장계농협 한뫼

장수군은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정현주),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곽정용) 등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2,010만 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올해 부임한 정현주 지부장과 김용준 장수농협 조합장, 곽정용 장계농협 조합장이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장수군지부와 장수·장계농협 임직원들의 자

발적인 참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지역 금융기관이 앞장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동참함으로써 지역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현주 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취약계층에 백미 200포 기탁

금산사의 온정, 지역사회에 희망 전해

김제시는 3일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주지 화평스님)가 관내 저소득 계층을 위해 백미(10kg) 2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금산사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백미 200포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

들의 소중한 식사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백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외된 곳을 살피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시 이·통장연합회, 성금 300만원 기탁

익산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차재용)는 3일 시정을 방문해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차재용 익산시 이·통장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읍면동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된 성금은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시 이·통장연합회는 29개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차재용 회장은 "29개 읍면동 회장들과 뜻을 모아 마련한 기탁금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 강진면지사협, 어르신께 팔죽 나눔 행사

임실군 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온(溫)동네, 팔죽한그릇, 마음따뜻한 나눔' 팔죽나눔행사를 개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막바지 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팔죽을 삶고 재료를 손질하며 정성껏 팔죽을 준비

했으며 관내 25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번 나눔은 단순한 음식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나누고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 총체적인 복지안전망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찾아와 안부를 물어봐주니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주 덕진구협의회, 사랑의 떡국 떡 나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주 덕진구협의회(회장 라태원)는 지난달 24일 전주시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협의회 회원 3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전북은행과 녹십자약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준비한 떡국 떡 200kg은 약 150만 원 상당으로, 전주시역 저소득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됐다.

라태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주 덕진구협의회 회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떡국 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꾸준히 살피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 나포면 서지마을 부녀회,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위한 성금 기탁

군산시 나포면은 나포면 서지마을 부녀회가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된 나눔 실천으로, 마을공동체가 주도한 활동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성금은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마을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지마을에서 부녀회와 마을 이장이 협력해 강정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마련됐다.

주민들은 다양한 강정 만들기 과정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수익 창출로까지 연결하며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성과를 이뤄냈다.

/군산=지수길 기자

인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 (2026년 3월 3일 자)

△상임감사 박규섭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一事一言〉



‘하위 20%’ 통보... 칼바람 부는 전북 정치권

김관춘
주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가운데 ‘하위 20%’를 통보하면서 전북 정치권에 거센 공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초 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정가는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사실상의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무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의신청 기한이 이미 마감됐고,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20%씩 이중 감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제도상 경선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재기의 문이 극히 좁아지기 때문이다.

전북은 오랜 기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을 유지해 온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분선에 오르며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지역 정서는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천 평가는 단순한 당내 절차가 아니라 곧 지역의 미래 권력을 가르는 관문이 된다. 그렇기에 이번 하위 20% 통보는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해당 지역의 향후 4년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다.

이번 조치는 당의 인적 쇄신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기득권에 안주한 현역을 숙여내고 경쟁력 있는 새 인물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라면 원칙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지방자치의 인물 경쟁력과 행정 역량이 곧 지역 발전의 성과로 직결된다.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무책임 정치가 반복

된다면 과감한 교체도 필요하다. 평가와 책임의 원칙이 분명해야 정치가 긴장하고 혁신한다.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평가 기준이 명확했는지, 정량·정성 지표가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외부 압력이나 계파 이해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그 자체로 제도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일부 인사의 경우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전언이 나오는가 하면, 논란을 겪었던 다른 인사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는 순간, 쇄신은 혁신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

하위 20% 통보는 단순 감점이 아니라 공천 경쟁의 판도를 사실상 결정짓는 장치다. 공천 심사 20% 감산, 경선 진출 시 추가 감점이 극히 어렵다. 제도적으로는 기회를 열어두었다고 하지만, 정치 현실에서는 봉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그만큼 평가 과정은 더 엄정하고, 더 치밀하며, 더 설명 가능해야 한다.

공천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가르는 절차이기 이전에, 지역 주민의 선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능력 있고 정열하며 비전을 갖춘 후보가 기회를 얻어야 전북의 미래도 전진한다.

반대로 계파 논리나 내부 정치 셈법이 개입해 경쟁력 있는 인물

을 배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조일수록 공천은 더 엄중한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당 지도부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진정한 혁신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모든 과정을 원칙과 데이터에 기반해 설명해야 한다. 평가 항목과 배점, 감점 사유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재심사가 이뤄졌음을 보여줘야 한다.

역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이기에도, 단 한 건의 오판도 가뻐지 않는다.

동시에 하위 통보를 받은 이들 역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민 평가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 내 신뢰도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쇄신은 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정치인 개인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 성찰과 별개로,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했는지는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민주적 정당 정치의 기본이다.

전북은 지금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 재정 압박이라는 삼중 과제 앞에 서 있다. 이런 시기에 지방 권력을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유능한 리더십은 지역의 생존 전략이고, 무능한 정치인은 곧 기회 상실이다. 공천 과정이 곧 전북의 경쟁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공천 칼바람’이 상처와 분열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인적 쇄신이라는 대의와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도민은 결과를 수용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실일수록, 공천은 더 공정해야 하고 더 투명해야 하며 더 책임 있어야 한다. 능력 있고 훌륭한 후보를 세워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단 한 명의 역울한 탈락자도 남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를 계기로 정당 민주주의의 본령도 함께 되짚어야 한다. 공천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원과 도민의 뜻을 만드는 공적 절차다.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 가능한 근거 제시를 갈등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이다.

혹여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면 과감히 보완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공천 과정이 일회성 정리 작업이 아니라 전북 정치의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결국 공정한 공천만이 당의 신뢰를 지키고, 그 신뢰 위에서만 전북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있다.

사설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전북 청년 고용으로 증명하라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9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전북은 다시한번 거대한 기대의 한복판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MOU 체결식은 “전북 역사상 최대 단일 기업 투자”, “새만금 35년 만의 전환점”이라는 수식어를 낳았다.

그러나 환호 뒤편에는 익숙한 질문이 따라붙는다. 과거 대형 투자 약속이 좌초된 기억 속에서 “이번에도 약속어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경계심이다. 환영과 불신이 공존하는 전북도민의 이러한 정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전북은 매년 7~8천 명, 많게는 1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지역에 남아 삶을 걸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자의 성과는 공장 규모나 설비 금액이 아니라, 청년의 월급과 경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AI·데이터센터·로봇·수소 산업은 본질적으로 전기 소비량은 엄청난데 비해, 사람을 덜 쓰는 산업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로봇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긴다면 거대한 건물과 설비만 남고 지역 고용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관건은 설계다. 현대차가 제시한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AI 수소 시티 구상은 하나의 밸류체인이다. 이를 ‘로봇만 일하는 단지’가 아니라 ‘로봇과 사람, AI와 청년이 함께 일하는 산업단지’로 재구성해야 한다.

설계·운영·유지보수·안전관리 인력, AI 개발·연구·서비스 인력, 그리고 지역 부품·장비·서비스 기업까지 포함하는 고용 생태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대기업 단일 공장에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뿌리 내리는 다층적 산업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북 청년·지역 인재 우선 채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도내 대학·특성화고·폴리텍과 연계한 로봇·수소·AI 특화 인력 양성 및 채용 트랙을 투자 초기 단계부터 설계해야 한다. 셋째,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과 현대차 전주공장, 새만금을 잇는 첨단 제조 벨트를 구축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가 도내에서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별 고용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착공식과 준공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채용 인원·지역 인재 비율·협력업체 참여 규모 등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책임 구조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기대와 불신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이번 투자가 선언이 아닌 실질적 변화임을 증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가져온 ‘미래의 현실’을 도민이 체감하는 ‘진짜 현실’로 바꾸는 일은 이제 전북 정치권과 행정의 몫이다. 이번 투자가 사람을 덜 쓰는 설비 투자가 아니라, 전북 청년의 월급명세서와 이력서에 남는 투자로 완성될 때 비로소 새만금은 전환점이 된다. 9조 원의 숫자가 아니라,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이라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문화재 열전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목조, 불상
-지정일 - 2023년 7월 2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544(감교리 714)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매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민국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솔풍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설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12

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다.



“전북의 변화,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0

남원시, 초고령사회 대비 '8대 맞춤형 복지'로 촘촘한 노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단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정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원시는 어르신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8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소득 보장,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생활안전까지 노년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대부분 사업을 신청 기반 제도로 운영해 필요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의료·생활·주거·일자리 등 통합돌봄 체계 운영 "신청부터 발굴까지"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존중 도시 구현·체감형 복지행정 실현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중심 정책 추진
남원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① 통합돌봄사업이다. 이 사업은 돌봄·의료·생활 지원을 개별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70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식사지원, 방문재활운동, 주거환경개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등 총 5가지 특화서비스가 연계 제공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식단 제공, 재활 전문 인력의 가정 방문 운동 지도,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병원 이동 지원과 진료비 부담 완화까지 한 번에 지원되는 구조다. 특히, 취약계층은 무료 또는 최소 비용만 부담하면 돼 실질적 돌봄 체감도가 높다. 이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계속 거주형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어르신이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 소득부터 안전까지... 8대 서비스 체계 구축
남원시는 ①통합돌봄사업을 중심으로 7개 사업을 연계해 총 8대 복지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② 기초연금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대표적 소득 보장 제도로, 단독가구는 최대 34만원대, 부부가구는 부부합산 55만원대까지 지원된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정기 방문과 전화 확인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으로, 돌봄 공백 예방 기능을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남원사회복지관·남원시노인복지관·지리산노인복지센터 등 3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 어르신 가정에 영양식 도시락을 직접 전달해 결식 예방과 건강 관리를 돕는다. 1식 7,000원 단가의 도시락이 제공되며, 현재 남원시에서 305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⑤ 목욕비 지원사업 목욕비 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회 목욕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매 분기

초 3회분씩 총전되며, 관내 지정 목욕업체 11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공익활동형(1일 3시간/월 30시간/월 29만원) ▲역량활용형(1일 3시간/주 5일/최대 월 76만원) ▲공동체사업단(판매 수익금에 따라 상이)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동비 또는 수익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12월, 남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남원시노인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과 읍·면·동을 통해 공고가 진행되며, 내년도 참여자를 모집한다. ⑦ 100세 이상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 이와 함께 100세 이상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남원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 두고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제공해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⑧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마지막으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독거 어르신 가정에 안전장비를 설치해 화재나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안전망 사업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신청 중심 복지 강화... 대상자 발굴도 병행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 중 하나는 제도 정보 부족이다.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원되는 구조인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현장 방문 상담, 맞춤형 안내,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행정'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어르신 존중 도시 구현" 남원시는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가 곧 모든 시민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 아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서비스 지원 범위를 넓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